

# 지리 수업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

강 창 숙\*

## Sex Differences and Gender Traits in the Geographic Learning

Chang-Sook Kang\*

**요약** : 학생들의 지리적 이해와 개념 발달 그리고 기능 습득 등이 복합적인 배경 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복합적인 배경 변인 중에서 성별 차이는 오랫동안 지리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최근 지리적 지식과 공간적 능력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는 성별 차이는 단순한 차이 그 자체보다는, 다면적인 젠더에 대한 과정 변인으로 진술되고 탐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이 지리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제 중학교 지리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지역과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활동에 대한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지리 학습에서는 성별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젠더별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의 개인차를 고려하는데 적절한 것은 단순한 성별 차이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젠더 특성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러한 특성들이 학습 효율성을 장려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지리 교육을 증진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지리적 지식, 공간적 능력, 성별 차이, 젠더 특성, 지리 학습

**Abstract** :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student mastery of concepts and skills in geographic education is based on a complex set of variables. Sex and gender are the key variables. Much has been written about biological sex differences in learning, but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impacts of socio-cultural gender on learning geography. As such, the aims of this paper are two-fold. First, to examine theories which seek to explain why males and females might differ in their geographic and spatial knowledge or skill. Second, to examine the extent of sex differences and gender traits in the geographic learning. The results of study illustrate clearly that there ar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Therefore, there a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between the preferences of regions, contents, activities in the secondary geographic learning. The results also provide insights into improving contents and method of geographic education.

**Key Words** : geographic knowledge, spatial ability, sex differences, gender traits, geographic learning

### 1. 서론

지리 교수-학습 연구의 주요 목적은 능력이나 발달 수준에 있어서 개인차를 보이는 학습자들의 지리적 이해와 발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리 교수-학습 연구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교수에 대한 관심만큼 학습자들의 발달에 관한 관심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를 계획할 때, 지리 교수-학습의 효율성은 실제화 될 수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지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한 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수 전략을 계획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적용할 때, 교실에서의 지리 수업은 학습자의 발달에 유의미한 교육 과정으로 발전할 것이다.

학생들의 지리적 이해와 개념 발달 그리고 기능 습득 등이 복합적인 배경 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복합적인 배경 변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Teac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ttached Middle School)gaia2004@hanafos.com

인 중에서 성별 차이는 오랫동안 지리학자와 심리학자의 관심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지리학자 및 심리학자들의 초기의 연구 결과는 모두 여성과 남성의 일상적인 지리적 지식 및 공간적 지식의 성별 차이(sex differences)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지식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 및 공간적 사고에 원용하는 전략에는 매우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차이들은 성적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Kitchin, R. M., 1996, 273).

그동안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적 지식이나 기능 습득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성별 차이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한 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는 '남자는 여자보다 공간적 인지능력이 우월하다'와 같은 정태적 형태로 진술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과학적 이론 구성을 위해서는 적절하지만,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제적인 형태는 아니다.

교수-학습 과정에는 '남자의 우월한 공간적 인지능력' 특성보다는 '어떻게 모든 학생들의 공간적 인지능력을 발달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즉 특성에 대한 기술보다는, 특성이 기능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교수-학습 과정에 관련된 현상을 과정 변인으로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교수-학습 실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지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는 성별 차이는 고정된 성의 단순한 차이 그 자체보다는, 다면적인 젠더에 대한 과정 변인으로 진술되고 탐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성별 차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지리 교육에 간접적으로 시사되었다.<sup>1)</sup> 성별 차이에 근거한 특성과는 달리 젠더(gender traits)의 특성과 역할은 상당히 인위적이고 가역적이므로, 지리 학습에 대한 젠더의 영향과 그에 따른 교수적 처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의 공간인 지나 대학생 혹은 성인들의 공간적 능력이나 기능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별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지리를 학습한 학생들의 젠더 유형을 조사하고,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되는 학습 지역과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활동에 대한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을 학습자의 지리 학습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 과정과 방법이 시론적이지만, 연구 내용과 결과는 학습자의 지리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교수를 계획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2. 지리적 지식과 공간적 능력에서의 성별 차이

### 1) 지리적 지식과 공간적 능력에서의 성별 차이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에 관심을 둔 지리학자 및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모두 여성과 남성의 일상적인 지리적 지식 및 공간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략 4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공간적 지식과 능력에서의 차이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공간적 지식 혹은 능력에 대한 성별 차이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 내용은, 주로 공간적 능력에서 나타나는 차이나 근원적인 지식의 차이 혹은 두 가지를 결합하는 능력의 차이를 인지적 지도를 완성하는 능력에서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Kitchin, R. M., 1996, 274). 인지적 지도화는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저장하며, 회상하고 번역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상이기 때문이다.

Self 등(1992)은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구체화된 공간적 표상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을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한다. 먼저, 결핍이론(The deficiency theory)의 지지자들은 심리학적 그리고 호르몬상의 변이 때문에 성별로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때문에 여성들은 공간적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인지도의 작성 과제 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차별이론(The difference theory) 지지자들은 아동기 때의 교육과 기대 수준, 부모와 제도적인 기대, 고정관념과 경험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차이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 때문에 성별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비능률이론

(The inefficiency theory) 지지자들은 공간적, 인지적 지도화 능력과 지식은 근본적으로 남녀가 같지만, 측정과제가 남성에게 유리한 문제 해결 전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성별 차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간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onzalez, B., and Gonzalez, E., 1997, 123). 일부 연구자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공간적 능력 혹은 인지 지도 작성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남녀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남녀간의 차이란 태도에 있어서 신중함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이경한(1988)은 인지도를 이용하여 초등 학생의 공간인지 능력의 발달을 연구하면서, 공간인지 능력과 성별, 사회성 그리고 도농간의 차이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간인지 능력과 성별 및 사회성과의 관계는 상관도가 없고, 도농간의 지역적 차이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서태열(1996) 또한 5세에서 14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소 개념의 발달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up>2)</sup>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지 몇몇 요인에 근거한 결과이긴 하지만, 공간적 지식과 인지 능력에 있어서 남녀가 다르다는 것이다. 남녀 혹은 여학생과 남학생의 공간적 지식과 인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리 교육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즉 교수-학습 과정에서 그리고 지리적 기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남녀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또한 성별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교정할 도구와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혹자는 이러한 차이가 남학생들에게는 좀더 정교한 공간적 기능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비공식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지리적 훈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Liben(1981)은 남학생들은 공간적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유리한 과학과 수학에 중점을 두는 과정을 수강하지만, 여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좀더 유리한 언어에 중점을 둔 과정을 수강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나 Self(1992) 등은 전문적인 교육이 남녀 모두를 증

진시키지만, 특히 여자의 경우는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 2) 지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특성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 남녀는 뚜렷이 다른 성격을 지녀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여성성만을 가지며, 남성은 남성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다(정진경, 1994, 285). 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인 양성적 시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 특성 역시 여성적인 것인지 남성적인 것인지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소녀들이 스포츠와 같은 강건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고무적이지 않았던 수십년 전에 비해 오늘날에는, 강건함의 정체성이 남성다운 특성으로 평가되는 정도가 낮다.

최근 성에 따른 지리적, 공간적 지식과 능력의 차이는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Kitchin(1996)은 젠더가 지리적 수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정량적인 과제 수행과 질적인 인터뷰를 통해, 18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지리적 훈련에서 나타내는 지리적 지식의 차이는 단지 소수의 경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성별 지리적 능력간의 차이에 관한 다른 연구들에서 발견된 차이도 젠더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Gilmartin과 Patton(1984)은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 행위의 서로 다른 패턴을 이끄는 것은 젠더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환경과 사회적 고정관념 및 대중 매체의 압력으로 좀더 빈도가 낮은 여성의 상호작용은 공간적, 인지적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되며, 성적인 제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행위 패턴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고

하고 있다. 어떤 특정 공간에 대한 여성의 상호작용은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의 일상 활동에 대한 제한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것이다(Rose, 1993, 16).

성별 차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의 연구들 또한 공간 학습에서 나타나는 젠더적인 특성들을 측정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단순히 남녀의 차에 근거한 인성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젠더 개념에 근거한 연구들의 원초적인 문제점은 남녀가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고정 관념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의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법적인 논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정진경, 1994, 296).

양성적 관점에서 공간적 능력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조사한 일부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공간적 능력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의미 있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러나 공간적 능력에 근거한 남성다운 것, 여성다운 것, 양성적인 것 그리고 확일적인 것과의 차이점을 구별하지는 못했다. 결국 공간적 능력에서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점은 구분했지만, 젠더에 따른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Hardwick, et al., 2000).

지리 학습의 성공이 성과 젠더 혹은 양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Hardwick 등(2000)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젠더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젠더 범주별 특성들은 기본적인 지리 평가 도구에 대한 수행과 비교하여, 젠더 특성과 지리 학습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였다. 연구 결과, 지리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성, 지리 전공, 생활 경험, 그리고 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젠더 범주의 영향은 의미 있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 단독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지만, 생활 경험이나 지리 전공 등과 같은 변인들과 결합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의미는 약하지만 성과 젠더 그리고 지리 전공은 다른 특성들보다 좀더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성적인 젠더와 남성의 영향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 교과로서의 지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한 연구는, 여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약한 공간적 기능 때문에 지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적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기반은 성별 심리적인 차이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경험한 사회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지리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차이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규정한다(Gonzalez, B., and Gonzalez, E., 1997, 120-121).

- 여자는 보다 우수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남자는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 남자는 전체적으로 수학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남자는 가시적-공간적 과제에서 좀더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차이를 배경으로, 공간적 기능에서 나타나는 젠더 관련 변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한다(Gonzalez, B., and Gonzalez, E., 1997, 120-121).

- 여학생들의 인지적 지도는 남학생들보다 덜 정확하다.
- 남자는 여자보다 공간적 가시화의 능력이 우월하다.
- 도시 환경에 대한 인지에서는 개인차가 있다.
- 공간적 기능에서 나타나는 젠더에 따른 차이는 발달 패턴에서도 계속된다.
- 그래프와 지도 읽기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우수하다.
- 개략도의 정확성과 젠더 간에는 관련성이 있다.

지리 학습에 대한 남녀 학생의 선호도 차이와 함께, 학습에서 곤란을 경험한 빈도, 다양한 학습 활동, 그리고 학습 과제에 대한 선호 등에서도 현저한 젠더 차이가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 여학생들은 노트 필기, 연습장과 교과서를 이용한 학습 활동, 그래프 그리기, 협동 학습, 게임 등을 선호하고, 남학생들은 지도/다이아그램 완성하기, 비디오 시청하기, 지도에서의 조사활동 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들은 자연환경, 농업, 촌락, 제3세계에 대한 연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남학생들은 자연지리학, 교통, 산업, 세계의 선진국 등에 대하여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Gonzalez, B., and Gonzalez, E., 1997,

122-123).

이러한 결과들은 테스트 그 자체 혹은 제시된 지리적 개념이나 과제의 특성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편견일 수도 있다. 남성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테스트에 유리하고,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테스트 그 자체의 인위적 산물일 수도 있다. 연구 방법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젠더와 성별 차이 그리고 지리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좀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하는 과정이 젠더적인 편견이 강화된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들 중의 일부는 수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적인 젠더나 남성적인 젠더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들은 젠더가 형식적인 교실 수업 환경 그리고 비형식적인 교육 환경 모두에서 지리적 지식과 기능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 3)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이 지리 학습에 미치는 문제

남녀 혹은 여학생과 남학생의 공간적 지식과 인지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이 지리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관련 연구들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이 지리 학습에 미치는 문제를 메타인지의 문제와 기회의 균등성 문제로 접근해 보자 한다.

지리적 지식을 대표하는 공간적 지식과 인지 능력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학습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간적 지식과 인지능력을 지리 학습의 중요한 여과 장치(critical filter)로 볼 경우, 남녀 학생의 차이는 단순한 공간적 인지와 기능에서의 차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지식의 전체에서 상대적인 열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습을 위한 모든 사고 과정에서 메타인지적인 문제로 나타난다(강창숙, 2002).

학습자의 개인차가 강조됨에 따라, 교육심리학자

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혼란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의 하나가 메타인지 개념이다(이달석, 1991, 39). 즉 성별 차이로 인한 지리 학습 문제에 대한 교육적 처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교수자 혹은 교수의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처치 가능한 측면이 메타인지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인지가 자기 자신의 인지체계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되면서, 메타인지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하나는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학습 방법을 제어하는 것에 대한 사고이다. 메타인지적 기능이 교수-학습의 전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된 점검기능(monitoring skills)을 계속하는 고차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지과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메타인지의 특성을 구명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학습 과정의 특성에 다양한 메타인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이달석, 1991).

지리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한 여학생들은 메타인지적인 문제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두 가지 메타메모리로 구분된다. 하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아는 방법을 아는 것(knowing how to know)'이고, 다른 하나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기 위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knowing about knowing)'이다. 자신감을 잃게 되면, 판단능력도 멈추게 되고, 공간적 행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게 되며, 그러한 혼란은 공간적 지식과 능력의 발달을 지체하게 될 것이다. 메타인지 능력의 부진함은 사회적 편견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인지나 지각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남자들의 자기만족도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남자들은 자신의 공간적 능력이 동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tchin, R. M., 1996, 277).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과 그 수행 능력 간에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 Liben(1981)은 남녀간 메타인지의 차이는, 남성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해

야 한다고 배웠지만 여성들은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고 배웠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메타인지적인 문제는 반드시 여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젠더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성적인 특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남학생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는 지리 수업에서 메타인지는 단순히 학습자 자신의 인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것의 활용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이 문제 또는 상황 등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전략 또는 합리적인 패턴 등을 적용토록 하는 사고력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교실에서 학생 자신이 토론을 위하여 정당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고하는 것, 또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 등으로 개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제적인 메타인지의 활용이다(Leat, D., 1997, 147).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이 지리 학습에 미치는 두 번째 문제는 기회의 균등성 문제이다. 기회의 균등성 문제는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지리 교사가 생각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지리 수업에서 교과 내용, 방법, 적절성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Gonzalez, B., and Gonzalez, E., 1997, 117). 즉, 학생들은 그들의 성과 관련된 차이가 있다는 편견을 넘어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수적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지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지리 교육이 성별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들도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공간적인 기능을 학습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재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남녀 간 차이의 유무 그 자체보다는, 교사의 중재(intervention) 태도가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교사가 지리 교수-학습 과정과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교사로부터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수업 장면과 남학생에게 유리한 과제 제시와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성 중심적 가치관에서 기술되는 교과서 및 학습 교재에서 나타나는 젠더적인 편견에 대한 교육적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의 젠더 특성에 대한 교사의 고려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사회화에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강조는 남학생의 우월성과 여학생의 열등성 강조로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사회에서 성에 대한 관점이 생물학적인 성에서 사회문화적인 성으로 다면화되고 있다. 당연히 교실에서의 성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면화되어야 한다.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극적 의미의 재생산과 강화로,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이다. 학생들에게 이미 주어진 배경변인들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들 변인들이 교수-학습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실이라는 미시 발생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을 통한 독특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른 변인의 작용을 약화하거나 차단시키는 효과(screen effect)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강창숙, 2002).

### 3. 중학교 지리 수업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양성적 시각에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검사는 Bem의 성역할검사(Bem Sex-Role Inventory, 이하 BSRI)이다. BSRI는 이 분야의 심리학적 연구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 관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번역 과정상의 오류 그리고 원 검사와 점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 때문에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성역할 검사가 개발되고 있다. 중국의 CSRI, 호주의 ASRI, 그리고 우리나라의 KSRI가 그 예이다.<sup>3)</sup>

이에 본 연구는 KSRI 검사지로 충북 청주시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 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젠더 유형을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대상 학생들의 젠더

유형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남성적과 양성적 그리고 미분화 유형으로 많이 분류되고, 여학생들은 미분화, 여성적, 남성적 유형으로 많이 분류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자신의 성과 관련된 젠더로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덜 분할적이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양성적, 남성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지리는 남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유리하고 선호하는 교과로 나타났지만 (Hardwick, et al., 2000, 239), 본 연구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좋아하는 교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들의 선호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양성적이고 남성적인 학생들의 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와 표 3).

중학교 지리 수업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은 학습 지역과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활동에 대한 성별, 젠더별 선호도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에서 사용

한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대단원에서 중단원명까지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교과서 단원 구성과 순서를 적용하여 질문지를 구성, 조사하였다.

학습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중단원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각 지방과 세계 여러 지역을 구분하여 교육과정 순서대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중단원명부터 교과 내용의 조직이나 진술 방식이 교과서별로 다르지만, 다루는 주제는 대부분이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배경, 자원과 산업,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우리나라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순서대로 학습 내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중학교 지리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활동을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보기, 활동하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며,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학습이 모두 이루어진 10월 초에 실시하였다.

1) 학습 지역에 대한 성별, 젠더별 선호도와 그 특성

(1) 우리나라 각 지방에 대한 성별, 젠더별 선호도와 그 특성

우리나라 각 지방에 대한 성별 선호도 조사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 '제주도' 지방을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1), 그 이유는 가보고 싶은 곳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남녀 학생 모두 '충청지방'은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가본 곳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으로 응답했다. 우리나라 각 지방에 대한 성별

표 1. 중학생의 젠더 유형

	남학생	여학생	계
양성적	32	27	59
남성적	39	22	61
여성적	11	27	38
미분화	27	30	57
계	109	106	215

표 2. 지리 교과에 대한 성별 선호도

	남학생	여학생	계
좋다	68	58	126
싫다	41	48	89
계	109	106	215

표 3. 지리 교과에 대한 젠더별 선호도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계
좋다	45	43	21	30	136
싫다	14	18	17	27	79
계	59	61	38	57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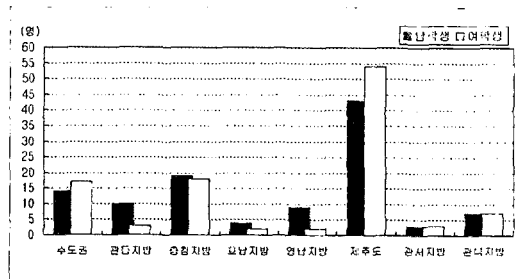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각 지방에 대한 성별 선호도

선호 이유는 전체적으로 가본 곳이거나 가보고 싶은 곳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표 4). 이는 우리 고장과 가까운 곳이라는 등의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이 학습 지역에 대한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우리나라 각 지방에 대한 젠더별 선호도 조사에서는, 모두 '제주도' 지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분화와 남성적인 학생들의 경우에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여성적이거나 미분화된 학생들의 경우는 학습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우리나라 각 지방에 대한 젠더별 선호 이유를 보면, 양성적인 경우와 남성적인 경우는 가본 곳이고 지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분화된 경우

의 선호 이유는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막연하고 정서적 이유로 나타났다. 여성적인 경우는 가본 곳, 가보고 싶은 곳, 지역에 대한 호기심 등의 이유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표 4). 조사대상 8개 지방에 대한 선호도는 제주도와 충청지방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호남지방과 관서지방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은 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에 대한 내용 구성이나 교수 방식, 학습 자료 구성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성별, 젠더별 선호도와 그 특성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성별 선호도를 보면, 남녀 학생 모두 앵글로 아메리카와 서부 및 북부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와 극지방에 대해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들 지역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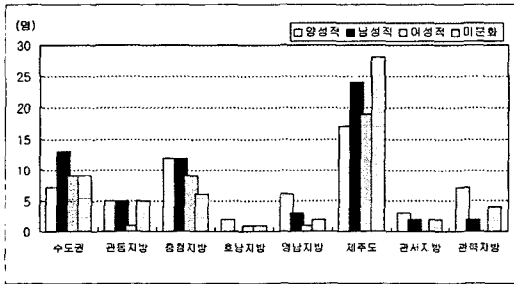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각 지방에 대한 젠더별 선호도

표 4. 우리나라 각 지방에 대한 젠더별 선호 이유

	가본 곳	가까운 곳	가보고 싶은 곳	호기심	매스컴	기타	계
양성적	20	3	11	15	7	3	59
남성적	20	1	15	15	6	4	61
여성적	13	2	12	8	3	0	38
미분화	16	2	25	9	5	0	57
계	69	8	63	47	21	7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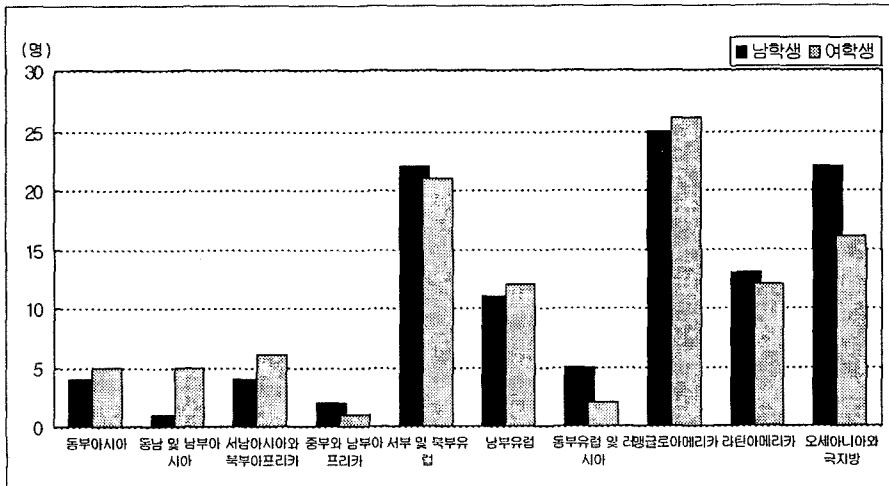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성별 선호도



선호 이유는 가보고 싶은 곳이며, 이들 지역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중부와 남부아프리카, 동남 및 남부아시아, 그리고 동부 유럽 및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각 지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도가 상당히 편향적이다. 또한 학생들은 대체로 선진 지역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지역에 대해 관심은 매우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젠더별 선호도를 보면, 양성적인 학생들은 특히 앵글로 아메리카를 선호하고, 남성적인 학생들은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서부 및 북부 유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적인 학생들은 앵글로 아메리카와 서부 및 북부 유럽을, 미분화된 학생들은 서부 및 북부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와 극지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선호 이유를 보면, 양성적, 남성적, 미분화된 경우는 가보고 싶은 곳이고 호기심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여성적인 학생들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표 5).

2) 학습 내용에 대한 성별, 젠더별 선호도와 그 특성

성별로 선호하는 학습 내용을 보면, 남녀 학생

모두 역사·문화적 배경을 특히 선호하고, 자연환경과 환경 및 지역문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원과 산업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학생들이 이들 내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다음은 실제 생활과 관련성, 새로운 내

표 5.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젠더별 선호 이유

	가본 곳	가까운 곳	가보고 싶은 곳	호기심	매스컴	기타	계
양성적	6	0	19	20	11	3	59
남성적	3	0	28	25	5	0	61
여성적	2	0	23	7	5	1	38
미분화	0	2	23	22	8	2	57
계	11	2	93	74	29	6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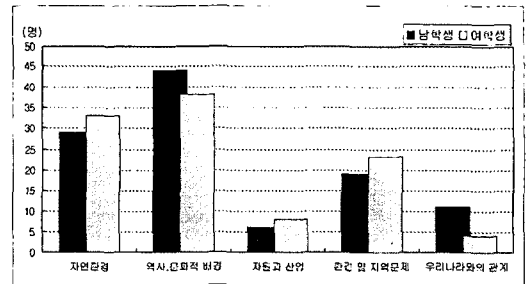


그림 5. 지리 교과 학습 내용에 대한 성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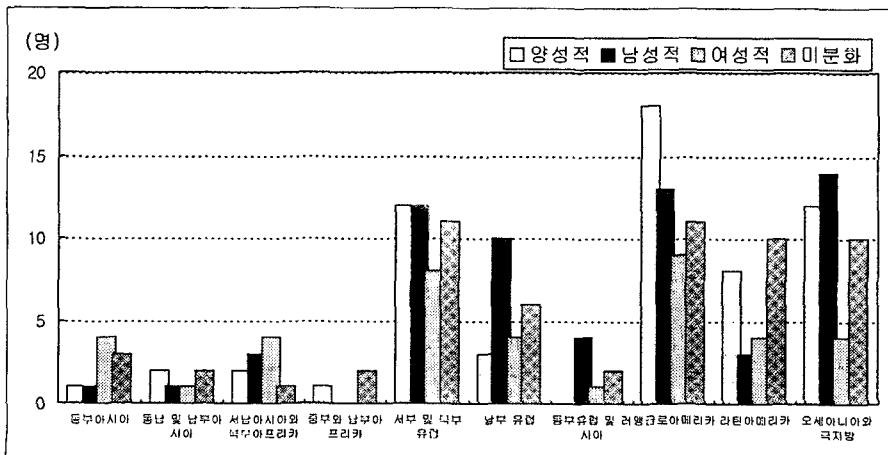


그림 4.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젠더별 선호도

용, 관심이 많은 분야 그리고 재미있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역사·문화적 배경과 자연환경은 교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대한 선호도 역시 편향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원과 산업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내용이 쉽고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이 높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호 비중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젠더별로 선호하는 학습 내용을 보면, 남성적인 학생들은 역사·문화적 배경을 특히 선호하였고, 양성적인 경우와 여성적인 경우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배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화된 경우는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배경, 그리고 환경 및 지역문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양성적인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이 학습 내용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이지만, 남성적인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선호하는 이유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성적인 경우와 미분화된 경우는 특히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들의 특성은 교수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다(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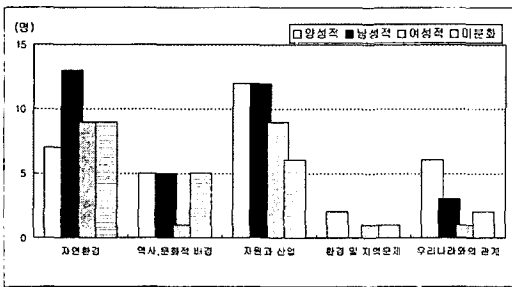


그림 6. 지리 교과 학습 내용에 대한 젠더별 선호도

표 6. 지리 교과 학습 내용에 대한 젠더별 선호 이유

	내용이 쉬워서	실제 생활과 관련되어	새로운 내용이어서	성격과 맞아서	관심이 많은 분야	재미있어서	계
양성적	13	9	7	1	17	12	59
남성적	12	14	14	4	14	3	61
여성적	12	9	7	2	2	6	38
미분화	21	12	9	0	4	11	57
계	58	44	37	7	37	32	215

### 3) 학습 활동에 대한 성별, 젠더별 선호도와 그 특성

학습 활동에 대한 성별, 젠더별 선호는 연구 대상 학교의 지리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보기, 활동하기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읽기 - 본문내용 예습·복습으로 읽어보기
- 말하기 - 질문에 대답하기, 과제 발표하기, 본문내용 대표로 읽기
- 듣기 - 선생님 설명 듣기, 친구들의 발표 듣기
- 쓰기 - 노트 필기하기, 학습지 완성하기
- 보기 - 동영상(플래시 포함) 보기, 비디오 보기, ppt 자료 보기
- 활동하기 - 지도에서 찾아보기, 지도 완성하기, 그래프 그리기, 제시된 과제 완성하기 등

성별로 선호하는 학습 활동을 보면, 남학생들은 '보기'를 가장 선호 했으며, 그 다음으로 '듣기', '쓰기', 그리고 '읽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보기', '읽기', 그리고 '듣기'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쓰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보기', '듣기', '읽기', '쓰기'의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학습 활동을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응답했다(그림 7). 이것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을 교실에서 실천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 향상이나 공부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쓰기'와 '읽기'가 매우 중요하고, '듣기'와 '활동하기' 그리고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그림 8).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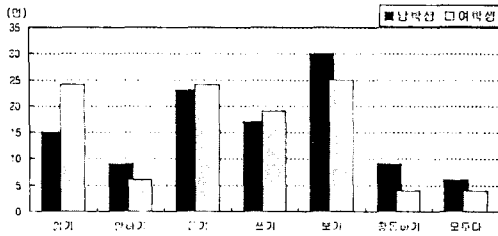


그림 7. 지리 교과 학습 활동에 대한 성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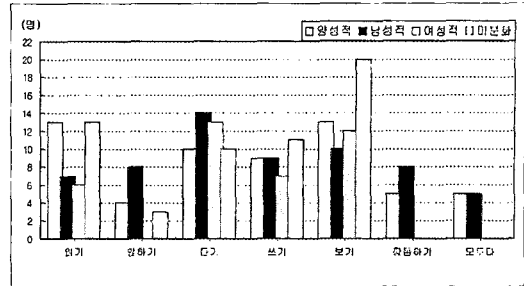


그림 9. 지리 교과 학습 활동에 대한 젠더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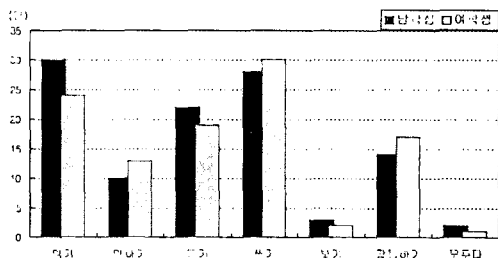


그림 8. 지리 교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활동

는 학습자들이 좋아한다고 응답한 활동보다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젠더별로 선호하는 활동을 보면, 양성적인 학생들은 '보기', '읽기'를 가장 선호하고 '듣기'와 '쓰기'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적인 학생들과 여성적인 학생들은 '듣기'와 '보기'를 선호하고, 미분화된 경우는 '보기'만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적인 학생들이일수록 선호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미분화된 경우는 극단적으로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므로 이에 대한 교수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그림 9).

#### 4. 결론

오늘날의 교수-학습 환경은 남녀 학생들로 하여금 '타자로서의 다른' 젠더들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교실에서의 성 역할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좀더 독립적이

고 강건할 것을, 남학생들은 좀더 섬세하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일 것을 권장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리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개인차에 좀더 적극적으로 상응하기 위해서는 성별 변인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내용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어떻게 이루어져야 좀더 바람직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지리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지역과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활동에 대한 성별 차이와 젠더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젠더 유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성적, 양성적, 미분화된 경우로 구분되었고, 여성적인 학생들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성과 관련된 젠더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덜 분할적이다. 교과에 대한 성별 선호도는 남녀 모두 좋아하는 교과로 나타났으며, 양성적이고 남성적인 학생들이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 지역에 대한 선호도에서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우리나라 각 지방과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지역 선호도의 편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이 학습 지역에 대한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 내용에 대한 선호도에서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좋아 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한 편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학습 내용에 대한 젠더별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여성적인 경우와 미분화된 경우는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를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습 활동에 대한 선호도에서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대체로 학생들은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학습 활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적인 학생들일수록 선호하는 활동이 다양하고, 미분화된 경우는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실력 향상이나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활동들은 '좋아한다'고 응답한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리 학습에서는 성별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이 나타나므로, 젠더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학습의 개인차를 고려하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단순한 성별 차이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젠더 특성을 학습 내용 구성이나 교수 방법, 학습 자료 구성 등 교수-학습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러한 특성들의 정체성이 학습 효율성을 장려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교수 방법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註

- 1)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의 예를 들면, ① Burstein, B. L., et al., 1980, Sex differences in cognitive functioning: evidence, determinants, implications, *Human Development*, 23, 289-313, ② Liben, L. S., 1978, Performance on Piagetian spatial tasks as a function of sex, field dependence, and training, *Merrill-Palmer Quarterly*, 24, 97-110, ③ Maccoby, E. E., and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Univ. Press 등이 있다.
- 2) 국내 지리교육에서는 성별 차이에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황병원(1999)은 고등학교 도시단원 교수 전략으로 개념도를 활용하여 집단별, 남녀별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취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나, 여학생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3) 심리학자 Bem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은 각기 다른 두 개의 개별성으로, 독립적인 차원의 인성이며, 어느 한쪽이 개별적으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특성의 양자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Bem의 양성성 개념은 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이에 관련된 연구 방법론 또한 확립성을 극복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성성 이론에 근거한 BSRI는 젠더에 바탕을 둔 성역할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인 측정 도구이다. BSRI를 바탕으로 한 KSRI는 우리나라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한 한국 성역할 검사지 이다(정진경, 1990). BSRI와 KSR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em, 1981; 정진경, 1990; 김남숙·정진경·박광배, 1997; Auster, C. J., and Ohm, S. C., 2000; 강창숙, 2002을 참고. 본 연구에서는 KSRI의 수정된 성역할 분류기준점을 적용하였다.

- 4) 선호 이유에 대한 질문 문항은 ① 내가(혹은 친척이) 살거나 가 본 곳이어서(이하 가본 곳), ②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이니까(이하 가까운 곳), ③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이하 가보고 싶은 곳), ④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이하 호기심), ⑤ TV 등 매스컴에서 많이 보거나, 이야기를 들어 본 지역이기 때문에(이하 매스컴), ⑥ 기타 등이다.

### 文獻

- 강창숙, 2002, "성별차이와 gender 특성이 지리 학습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교육연구*, 9(2), 245-257.
- 김남숙·정진경·박광배, 1997, "한국 성역할 검사의 수정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1(2), 77-90.
- 서태열, 1996, "한국 학생의 위계적 포섭관계에 대한 이해의 발달단계," *지리학논집*, 22(1), 181-189.
- 이경한, 1988, "아동의 공간 인지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인지도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20, 67-83.
- 이달석, 1991, "메타인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29, 39-55.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1), 82-92.
- , 1994, "여성학 방법론-심리학 연구의 여성학적 접근방법-," *한국여성학*, 10, 283-306.
- 황병원, 1998, 지리 교수 전략으로서 개념도 활용-고등학교 한국지리 '도시' 단원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uster, C. J. and Ohm, S. C., 2000,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a reevaluation using the bem sex-role inventory, *Sex Roles*, 43(7/8), 499-528.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 88(4), 354-364.
- Gillmartin, P. and Patton, J. C., 1984, Comparing the sexes on spatial abilities: map-use skills, *AAAG.*, 74, 605-619.
- Gonzalez, B., and Gonzalez, E., 1997, Equal opportunity and the teaching of geography., in Tilbury, D., and Williams, M.(eds.), *Teaching and Learning Geography*, Routledge, London, 117-129.
- Hardwick, S. W., Bean, L. L., Alexander, K. A., and Shelly F. M., 2000, Gender vs. sex differences: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in geographic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99, 238-244.
- Kitchin, R. M., 1996, Are there sex differences in geograph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e Geographical Journal*, 162(3), 273-286.
- Leat, D., 1997, Cognitive acceleration in geographical education., in Tilbury, D., and Williams, M.(eds.), *Teaching and Learning Geography*, Routledge, London, 143-153.
- Liven, L., 1981, Spatial representation and behavior: multiple perspectives, in Liven, L., Patterson, A. M. and Newcombe, N. (eds.), *Spatial Representation and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Academic Press, New York.
-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Polity Press, Cambridge.
- Self, S. M., Gopal, S., Golledge, R. G., and Fenstermaker, S., 1992, Gender-related difference in spatial abilities, *Prog. Human Geogr.*, 16, 315-342.

최초투고일 04. 11. 04

최종접수일 04. 12. 11

교신 : 강창숙. 361-2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6-9  
(이메일: gaia2004@hanafos.com)

Correspondence : Chang-Sook Ka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ttached Middle School  
(gaia2004@hanafos.com)